광산구 갑 지역구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통합민주당 김동철 후보(사진 왼쪽)와 무소속 송병태 후보가 1일 각각 광산구 월곡동 월곡공원 경로당과 아파트 상가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갑

"거여 견제해야" "일꾼 뽑아달라" 팽팽

4·9 총선 표밭

○…18대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광주 광산갑 지역구에서는 1일 김동철 통합민주당 후보와 송병태 무소속 후보가 '거여(巨與) 견제론'과 '일꾼론'을 내세워 치열한 유세전을 전개.

김동철 후보는 이날 광산구 소촌동 소촌라인 2차 아파트 앞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

김 후보는 이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금품선거 추방', '투표 참가'를 주제로 한 거리 퍼포먼스에 참가,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

송병태 후보도 운남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맹목적인 정당 투표 보다는 지역 정서와 현안을 잘 아는 인물을 뽑아달라"며 민심을 공략.

송 후보는 중장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상가와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맨투맨 접촉기회를 늘리는 한편 젊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표밭갈이 강행군.

한나라당 조재현 후보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으며 민노당 조삼수 후보와 평화가정당 박정수 후보도 거리유세를 통해 표심잡기에 총력.

박주선 "구도심 활성화 특별법 제정할 것"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는 1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남광주시장과 수기동 가구거리, 지산동 법원 사거리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

박 후보는 유권자들과 만나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이전 등으로 호남을 대표했던 충장로와 금남로 등 주요 상권이 고사위기에 직면했다"며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구 발전을 위해 '구도심 활성화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

강운태-지병문, 상가·시장 돌며 지지 호소

○…강운태 광주 남구(무소속) 후보는 1일 남구관내 상가와 아파트 등을 방문, 유권자들가 만나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강 후보는 "정당에서도 경쟁적으로 깨끗한 후보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부정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의 선출직 제한은 혼탁선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지병문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후보도 이날 오전 백운동 선거사무실에서 40여명의 전·현직 지방의원과 함께 '총선 승리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통합민주당 후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등시장 등을 돌며 정책 공약을 내놓는 등 표밭갈이에 총력.

김경진 "지역발전 책임질 인물 선택해 달라"

○…김경진 광주 북구갑(무소속) 후보는 1일 광주역 인근에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유세를 펼치면서 "당을 떠나 지역 발전을 챙길 수 있는 인물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

김 후보는 이날 "이번 18대 총선은 정책, 인물, 후보 검증 등이 전무한 선거"라며 "다음 4년을 준비하려면 유권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당을 떠나 지역 발전을 책임질 인물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

민화식-김영록, 진도·해남 찾아 표밭갈이

○…민화식 해남·완도·진도군 통합민주당 후보는 1일 진도지역을 돌며 표심 잡기에 총력.

민 후보는 이날 진도읍과 의신면, 고군면, 군내면 등에서 릴레이 유세를 통해 "지역의 생물자원을 바탕으로 친환경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친환경 기능성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해남·완도·진도를 권역으로 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종합개발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

김영록 무소속 후보는 이날 해남지역에서 유권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주요 정책을 제시하며 소중한 한표를 호소.

김 후보는 "지역 낙후도에 따른 국가지원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고, 농어촌 학교 특례지원 확대와 공립형 기숙학교 육성, 농어촌 여성과 청소년 장애우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해남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지지를 당부.

서갑원 "토론회 참여 정책·비전 제시할 터"

○…서갑원 통합민주당 순천시 후보는 2일부터 방송 토론회에 참여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들겠다는 전략을 마련.

서 후보는 "매일 거리 유세를 펼쳐 인지도를 높이고 있지만 이제는 방송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 지역 현안을 비롯해 발전 방안을 담은 정책을 선보여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

강기정-한화갑 '북갑 발전' 정책 공약 발표

○…광주 북구갑 지역의 강기정 통합민주당 후보와 한화갑 후보는 1일 서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공약을 발표하는 등 표심잡기에 분주.

강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역 광장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공약했고, 한 후보는 지역을 돌며"광주 북구에 세계 민주 지도자 기념관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정책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택지 국유화·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튀어야 산다' 이색 공약 봇물

4·9 총선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일부 후보들이 이색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시선 끌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이색 공약은 통합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등 유력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놓았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순천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이수근 후보는 택지의 국유화로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공약과 함께 전·월세 전환률 연 5% 상한제를 제시해 집 없는 서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또 영광·함평·장성에 출마한 김영수 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2012년 남북총선대비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아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광주 동구에 출마한 자유선진당의 구봉우 후보는 실직 가장들을 3D 업종 외국인 근로자 자리로 대체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한다는 소위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을 선보였다.

광산구 갑에 출마한 평화통일가정당의 박정수 후보는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선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8명의 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이 1일 광주역 앞에서 지역구별 공약발표와 함께 공동선대위를 구성하고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소속 돌풍 막아라 !

민주 광주 후보들 공동선대위 구성·지역별 공약 발표

통합민주당의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이 '무소속 돌풍'에 대응하는 카드로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내놨다.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후보들은 1일 오전 광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주 지역 후보들이 공동선대위를 꾸려 함께 활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광주에서 정치적 도의나 명분도 없는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 후 복당'이라는 거짓 공약을 내세우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지만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며 탈당 무소속 후보들을 겨냥했다.

선거가 사실상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선대위 구성은 일부 선거구에서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무소속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의 텃밭'인 광주에서 1석이라도 내준다면 자존심에 적지 않는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공천심사에 대한 '민심이반'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염동연 의원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염 의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염의원이 맡을 것임을 시사했다.

광주지역 공동선대위는 2일 오후 박상천 공동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김원기 당 공동선대위원장, 유종필 대변인 등이 합세한 가운데 출범 행사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1㎿급 태양광 시민발전소 건립(동구) ▲종합 비즈니스서비스 센터 건립(서구갑) ▲복합 웰빙 문화체육벨트 조성(서구을) ▲500억원 규모 문화산업 펀드 조성(남구)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북구갑)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북구을)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광산갑)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광산을) 등의 선거구별 대표 공약이 발표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